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4호 2014. 04 117~131쪽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Overcoming the Cultural Identity Crisis through Urban Public Policy

Chang Kil Lee**

Department of Urban Policy &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Abstract

This study originated from the question, "Why city government uses the cultural factors as a means of abstract and ambiguous city's growth strategy." Objectives of this study prove the situational awareness regarding cultural crisis, and suggest cultural crisis overcoming alternatives. The city's cultural crisis is the threatening phenomenon affecting civil life by the misconceptions, incorrect use of culture. City governments promote the cultural projects obsessed tangible results, and seek only the growth scale cultural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cultural values must be pursued balanced succession, sharing and spreading by the citizens. Second, cultural policies have to be promoted reflecting long-term perspective. Third, the city's symbols should be reflected the historical and temporal stories of the city and citizen's life. Finally, cultural facilities must be harmonized with urban spatial structure.

Key words: cultural identity, cultural crisis, cultural symbol, cultural strategy

---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2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el. +82-32-835-8739/8744. Fax. +82-32-835-0796. E-mail. changkillee@incheon.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Apr. 10, 2014 / Revised: Apr. 19, 2014 / Accepted: Apr. 28, 2014

1738-8368 © 2014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www.kci.go.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성장전략에서 문화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화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는 문화에 대한 명확한 가치인식과 활용방식에 대한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발전과 도시민의 삶에 위해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연구결과 실제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문화적 요인들이 도시성장 요인들과 연계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도시정부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문화사업 추진, 규모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문화전략 및 시설건립,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시민의 참여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도시민이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화계승과 도시성장과 관련된 가치들의 균형적 추구,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 셋째, 도시의 역사적·시간적 스토리가 담긴 상징개발, 마지막으로 도시의 공간구조와 조화되고 융화된 문화적 상징과 문화시설 등의 배치 및 도시설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문화정체성, 문화위기, 문화상징, 문화전략

Ⅰ. 서론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적 성장과 함께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에 도시는 외적성장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 환경위기 등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다.

도시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오면서, 또한 시민들이 삶을 영위해오면서 생성되는 다양한 의미의 정체성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도시민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활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할 경우에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도시정책의 많은 부분에서 문화를 활용한 도시발전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문화를 매개로 한 과도한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추상적인 정책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로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방향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문화정체성의 추진의지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기반이 되어야 하는 문화에 관한 명확한 사전지식과 미래예측 역량 등이 부족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개발은 외적성장과 개발이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왔고, 문화의 가치를 소홀이 하며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책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민들도 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현실이다.

문화위기 극복과 정체성 확보에 대한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측면을 반영하여 도시정책으로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단지 해외 선진도시의 발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에 대한 선험적, 개념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www.kci.go.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화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증적 검증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위기현상과 대안탐색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실적 문제와 대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도시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통계적 검증으로 상관계수 분석, 다변량분산분석 등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을 활용하였다.

Ⅱ.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에 관한 논의

1. 문화정체성의 개념

도시민에게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였을 때 과연 어떠한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룬 일부 선진국의 도시들은 국가의 핵심적 지위에 있어서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건축물과 조형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은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는 한 사회와 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가치, 전통, 예술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문화는 각 학문적 견해에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문화의 개념은 보다 좁은 의미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 대상으로서의 문화로 한정하고자 한다. 즉, 도시의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대상 또는 수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체성에 관한 개념정의는 인문학 등의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또한 연구의 제목에는 문화와 혼합하여 문화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배경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들과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정체성이란 특정한 지역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문화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의 문화정체성이란 도시민이 가지는 역사적인 공감대와 자긍심, 삶의 양식과 신념의 근원이며 또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미지와 물질적·비물질적 역사적 유산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일 것이다.

www.kci.go.kr

<표 1> 문화정체성의 개념

연구자	개념정의
남근우(2011)	차별화되고 특수한 삶의 행위와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공유되고 학습된 행위주체 자신만의 가치체계로, 이는 특정한 의미를 생산하고 다음 세대의 문화로 전수되는 것
전형연・정지연 (2010)	정체성이란 브랜드의 관점에서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명명되면서 정의됨. 지역 브랜드의 성공이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인함. 특정 지역만이 지니는 매력적인 문화요소는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 경쟁우위요소임
김유신・윤상근 (2011)	중요하게 전승되는 가치와 믿음들의 다발이여 시간에 걸쳐 서로 유기적, 인과적 연결을 갖고, 항상성을 지님. 지속적 혹은 본질적 정체성과 구성적 정체성의 두 성분으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타문화를 수용, 이해를 위한 해석의 기반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후자는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 문화적인 바람, 문화적 역동성, 상호작용의 형태에 의존하면서 자신을 해석하여, 그 자신의 문화를 변형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계속 구성해 가는 것임

2.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절박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학문적 차원에서 위기는 자연현상, 인간의 실수나 고의,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회 체계의 범위가 지역사회 이상이면서 체계의 존립이나 구성원의 생명, 건강,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된다(이재은, 2012).

현재 도시에서 문화는 경제적 수익증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신도시 개발, 구도심 재생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시정부 중에 문화를 발전전략으로 제시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전략과 지향점이 되었다.

도시정부에서 지향하는 문화도시, 창조도시는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가치창조와 문화경쟁력 향상이라는 성과를 창출하여, 나아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문화적 요소들이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부는 문화상징적 건축물을 만들거나 지역축제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하는 문화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문화정체성을 기반으로 도시발전을 지향한다는 목적 하에 건설된 대규모 문화시설과 난잡한 행사 등으로 인하여 도시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도시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이는 지역사회에 위협을 주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문화적 요소들이 도시의 양적, 질적 성장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문화적 위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에 대한 명확한 가치인식과 활용방식에 대한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위해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현상을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라 정의하고자 한다.

III.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에 관한 실증분석

www.kci.go.kr

1. 대도시의 문화와 도시성장과의 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문화적 요소들이 도시발전 및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위하여, 대도시에서의 문화적 요소들이 지역의 성장요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 분석은 두 변수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분석방법이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대도시인 7개 광역자치단체 69개구(5개 군 제외)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통계자료는 각 자치단체의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문화재청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1년으로 설정하였다. 통계적 검증으로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문화지표인 “지역문화재 수”와 “문화기반시설 수”의 독립변수가 양적·질적 도시성장지표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한 연구변수는 <표 2>와 같다. 실제적으로 도시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조사되고 공개된 통계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변수 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표 2> 연구변수

문화여건	도시의 성장
① 지역 문화재 수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유·무형문화재 등) ② 문화기반시설 수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등을 의미)	① 인구 ② 재정자립도 ③ 시가화 면적비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 ④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을 “좋음”과 “매우 좋음”으로 인식하는 비율)

상관계수는 두 변수간 관계의 강약을 의미하며, 1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0이면 상관관계가 전혀없음을 나타낸다. 보통 0~0.3은 약한관계, 0.3~0.7은 보통관계, 0.7~1은 강한관계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문화재 수는 문화기반시설 수와 보통의 관계가 있을 뿐, 종속변수인 인구, 재정자립도, 시가화 면적비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기반 시설 수는 인구와 재정자립도와 보통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와 재정적 부분의 양적증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지역의 역사적 스토리를 반영하고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인 문화재가 실제적으로 도시의 성장요인들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활용한 문화재 수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재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은 현 시대의 성장기반의 정신적 뿌리가 되며, 후손에게도 물려주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

www.kci.go.kr

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들을 선전적인 정책의 희생양으로 활용할 뿐, 가치를 이해하고 도시성장 스토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은 변화되어야 하는 도시정부의 큰 과제일 것이다.

<표 3> 상관관계

		문화재수	문화기반 시설 수	인구	재정자립도	시가화 면적비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문화재수	Pearson 상관계수	1	.423**	.080	.087	-.193	.082
	유의확률(한쪽)		.000	.258	.240	.056	.252
	N	69	69	69	69	69	69
문화기반 시설 수	Pearson 상관계수	.423**	1	.393**	.349**	-.081	.150
	유의확률(한쪽)	.000		.000	.002	.254	.109
	N	69	69	69	69	69	69
인구	Pearson 상관계수	.080	.393**	1	.195	.007	-.056
	유의확률(한쪽)	.258	.000		.054	.478	.324
	N	69	69	69	69	69	69
재정자립도	Pearson 상관계수	.087	.349**	.195	1	.391**	.025
	유의확률(한쪽)	.240	.002	.054		.000	.419
	N	69	69	69	69	69	69
시가화 면적비율	Pearson 상관계수	-.193	-.081	.007	.391**	1	-.096
	유의확률(한쪽)	.056	.254	.478	.000		.215
	N	69	69	69	69	69	69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Pearson 상관계수	.082	.150	-.056	.025	-.096	1
	유의확률(한쪽)	.252	.109	.324	.419	.215	
	N	69	69	69	69	69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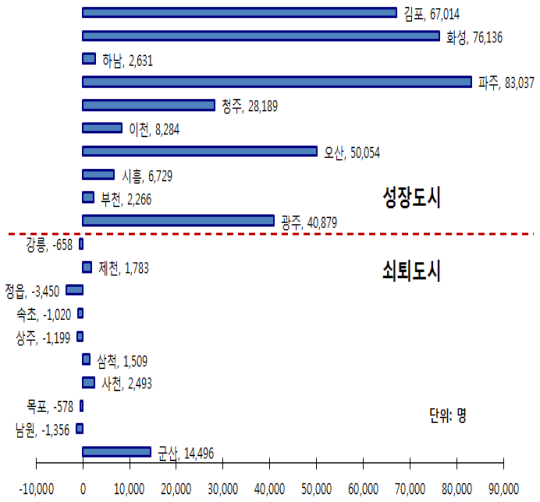
※ **. 상관계수는 0.01 수준(한쪽)에서 유의함.

2. 중・소도시의 문화적 위기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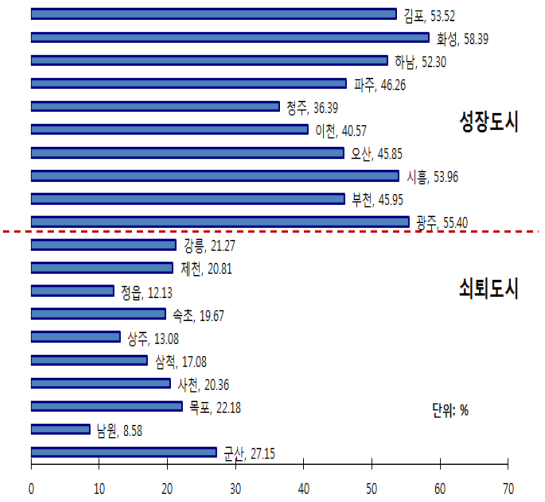
앞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은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제 성장도시와 쇠퇴도시의 문화적요소들이 도시성장요소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한 Lee(2013)의 연구는 성장도시와 쇠퇴도시와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대상 도시를 선정하였으며(박병호・김준용, 2010; 조진희 외, 2010; 이영성 외, 2010), 이를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비교하여 제시하였다(Lee, 2013). 이 분석결과는 탐색적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자료

www.kci.go.kr

를 활용하여 중·소도시의 문화적 위기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성장도시와 쇠퇴도시는 <그림 1>과 같이 2008년-2012년의 5년간 인구증가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에서도 2012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성장도시와 쇠퇴도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성장도시와 쇠퇴도시는 산업 및 경제구조와 성장률, 도시공간구조, 문화적 자산, 복지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어 제시되고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20개 도시는 복수연구에서 중복적으로 산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선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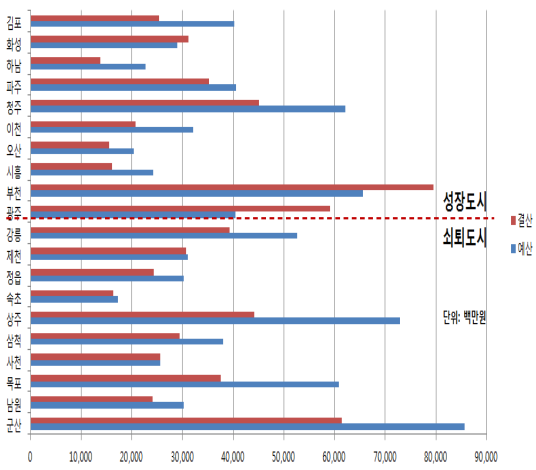
<그림 1> 2008-2012 인구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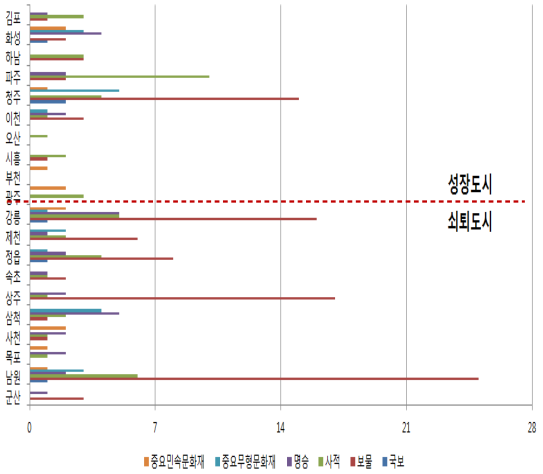
<그림 2> 2012년 재정자립도

<그림 3>은 대상도시의 2011년 문화관광 예산과 결산을 나타낸 것이다. 하남, 오산, 시흥 등을 보면 성장도시에서의 문화관광 예산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기 낮으며, 도시의 발전전략에 상대적으로 문화관광분야에 낮은 관심을 두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쇠퇴도시의 상주, 군산, 목포, 강릉을 보면 문화관광예산이 비교적 많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쇠퇴도시의 특징은 예산액이 결산액보다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문화관광분야의 명확하게 계획된 전략이 없이 행정이 이루어져, 계획적인 실천력 부족, 효율적 예산집행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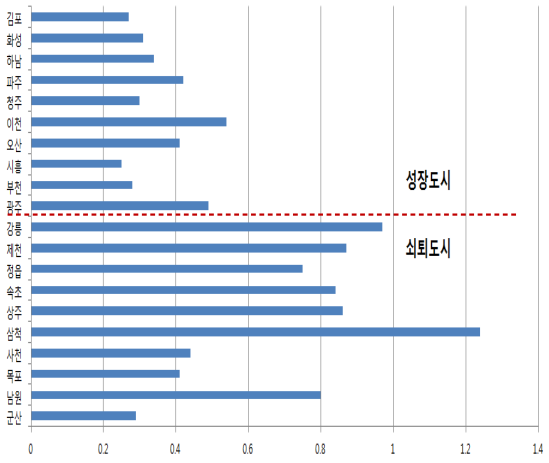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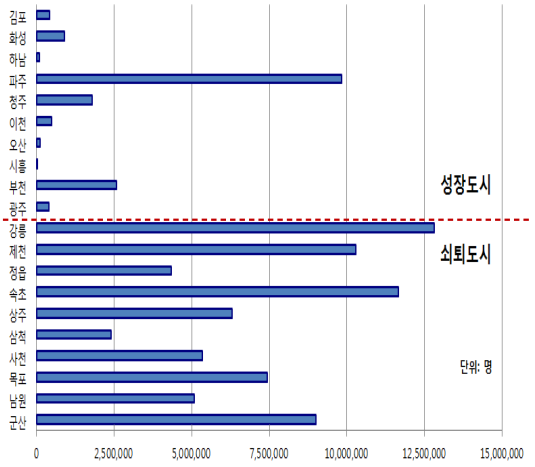
<그림 3> 2011년 문화관광 예산·결산



<그림 4> 지정·등록문화재



<그림 5> 인구 1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그림 6> 유료관광객 수

<그림 4>는 쇠퇴도시에 문화유산이 더 많이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유산은 도시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선진도시의 경우에도 문화적 유산을 활용하여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의 상징으로 활용하며, 문화산업 성장기반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유산이 주요 관심대상임은 확실하나, 실제적으로 도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문화적 유산은 보존의 측면에서 성장기반으로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활용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활동의 장이 되는 <그림 5> 인구 1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를 보면 쇠퇴도시에 더 충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해당 도시의 인구수에 비교하면 총 시설수는 비슷한 수준이나 실제 인구 1만

www.kci.go.kr

명당 비교하면 쇠퇴도시에 더 많이 문화시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도시라는 개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화적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충족된다는 것은 성장도시로서의 기본적 요소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의 경우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광수입적 측면에서 <그림 6>의 유료관광객 수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관광수입이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쇠퇴도시에 문화유산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다는 점은 문화관광산업을 지역의 경제활성화 전략과 연계시키는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도시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의 자생력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정적 투자는 도시경제의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실증연구들이 있다(이병량·박윤환, 2013).

우리나라의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만으로 확정하여 얘기하기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도시정부에서 눈에 띄는 결과만을 지향하여 추진하고 있는 많은 문화적 축제와 행사,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규모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문화전략,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시민의 지역문화발전에 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위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Ⅳ.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극복 정책방안

1. 대안제시를 위한 방향 도출

대도시에서 문화적 측면이 도시의 성장요소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 요소의 활용방안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은 분산분석(ANOVA)의 연장선에서 개발된 통계기법으로 종속변수가 둘 이상인 경우 독립변수가 어떤 종속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기법이다. 독립변수의 값은 제한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종속변수의 변수 값은 계속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활용한다. 다변량 분산분석은 독립변수가 여러 종속변수들에 대하여 갖는 동시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즉 종속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동시적인 검증을 하여 전반적인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허만형, 2001).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모델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하여 Pillai의 트레이스, 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근의 통계치는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유의

www.kci.go.kr

확률 값이 모두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어느 종속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F값에 의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 다변량 검정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문화재 수	Pillai의 트레이스	1.352	4.522	28.000	248.000	.000
	Wilks의 람다	.036	11.550	28.000	214.15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16.725	34.346	28.000	230.000	.000
	Roy의 최대근	16.167	143.189b	7.000	62.000	.000
문화기반 시설 수	Pillai의 트레이스	1.475	5.173	28.000	248.000	.000
	Wilks의 람다	.029	12.680	28.000	214.15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17.825	36.604	28.000	230.000	.000
	Roy의 최대근	17.061	151.114b	7.000	62.000	.000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는 F값 크기를 비교하여 독립변수의 개별 종속변수에 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소스	종속 변수	제 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문화재 수	인구	1149.085	7	164.155	40.724	.000
	재정자립도	1141.000	7	163.000	39.171	.000
	시가화면적비율	1187.052	7	169.579	49.606	.000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1178.256	7	168.322	45.424	.000
문화기반 시설 수	인구	1210.522	7	172.932	56.886	.000
	재정자립도	1178.104	7	168.301	47.238	.000
	시가화면적비율	1147.571	7	163.939	40.426	.000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1150.380	7	164.340	39.551	.000

개별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면, 문화재 수는 시가화면적 비율,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인구, 재정자립도 순으로 보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반시설 수는 인구, 재정자립도, 시가화면적비율,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의 방향을 도출하면 첫째, 문화유산은 보존의 가치를 유지하며, 지역의 경제적 측면과 연계되어 성장요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징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셋째, 문화기반시설은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도시민의 주변에 자리매김을 하여야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등은 도시를 재구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핵심지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안

1) 도시민이 공유·확산하는 문화계승과 도시성장의 균형적 가치추구

www.kci.go.kr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문화계승과 지역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문화의 기본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헌장을 보면 문화유산은 원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알고, 계승·발전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 보존, 향유, 계승의 기본적 가치를 지켜야 함은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단지 이러한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도시성장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적인 활용을 통해서 실제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창조도시를 추구하며 진행되는 국내·외 도시의 재개발 및 문화기반구축 사업이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부작용을 보여주었으며, 지역의 상징성과 브랜드가치 추구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지역민이 소외되는 지양되어야 할 문제점을 보여주었다(김상원 외, 2012). 지역주민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문화가 외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도시민은 삶을 살아가는 지역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확산시키는 풍부한 활용자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즉, 문화계승과 도시성장의 균형적 가치추구는 문화가 도시민 삶과 생활에서도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며, 확신을 주는 과정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정체성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역사적 특성, 생활방식 등을 포괄하는 심층적이고 세밀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

우리는 주변에서 문화적 사업이나 활동, 산업 등이 유행처럼 번졌다가 쉽게 사라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무엇보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시재생과 문화를 연계하여야 한다. 즉, 문화는 도시의 지속성을 가진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도시를 재생한 선진국의 지방중소도시들도 부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기는 하였으나,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을 마련하고 20여년 내외의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역사문화자원을 보전적으로 재활용하여 도시전략산업에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복합문화시설지구 개발 및 인간중심적·문화예술적 도시디자인 시행을 통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향상하고 문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강화하였다(김항집, 2011).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는 단기적, 산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도시의 문화적 유산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장기적 전략기획을 정립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산업이 창조도시를 대표하는 것이라 믿으며, 이를 추진하지만 결국에는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신성장산업, 첨단산업 등의 경제학적 우위를 점하는 산업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도시정부는 경제적 특구개발에만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문화산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www.kci.go.kr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즉, 문화가 도시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산업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도시의 역사적・시간적 스토리가 담긴 상징개발

도시의 상징이 있는가, 도시가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적인 도시의 역사성에 기반한 스토리적 창조성의 정립은 어려운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와 대안탐구는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위에서 문화는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징으로 역할을 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일자리, 교육환경 등을 따라 인구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에 문화적 매력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새롭게 거주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정부는 도시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도시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방문자가 매우 적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부가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한 도시의 상품가치 구현과 콘텐츠 전문가의 양성 및 홍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김영종・이재호, 2010). 도시의 상징 또한 시민의 삶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한다. 즉, 도시의 상징은 도시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이미지화 하여 도시민의 내재적인 자긍심을 표출할 수 있는 기재가 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은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규모로 지어지며, 유명건축가가 디자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경우 동대문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유명 해외디자이너에 의해서 거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된 정치적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한강의 세빛둥둥섬의 경우도 많은 비용을 들여 지어졌으나 수년간 방치되어 애물단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인천의 경우도 마카오 3배 규모의 인천 8 City 개발계획을 약 300조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사실상 포기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시각적 효과와 경제적 수익성에 편중된 단편적 문화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무엇보다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활성화, 도시마케팅 등의 수단으로 개발되는 도시의 상징이 왜 효과성이 없는 정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문제인식과 원인분석, 전략적 지향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4) 도시공간구조와 문화자원, 문화시설의 융화

도시의 문화적 상징과 문화시설 등은 도시공간구조와 융화된 동선에 위치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문화가 단순한 물리적 생산물이나 사회구조 자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오장근, 2009). 기호학적 측면에서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로 구성되는 기호와 서사구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나아가 핵심문화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 도시들의 중요한 상징물들은 집중적인 분포를 지님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쉽게 기억되며

www.kci.go.kr

도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끌어 주는 도시의 중심 또는 주요지점에 상징축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위치하고 있다. 또한 과거부터 존재해 온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간다. 도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과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간접적으로 도시에서 생산되는 산업적 생산물 및 문화적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최경란 외, 2009). 즉 상호관련된 맥락과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구조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의 문화적 상징은 도시에 융화된 동선을 따라 위치하지 않고 정치적 결정과 합의에 따라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문화적 시설과 장소 등이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외적성장에 있어 문화를 단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시작하였다. 이에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화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문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위기현상과 앞으로의 문화정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도시의 문화정체성은 도시민이 가지는 역사적인 공감대와 자긍심, 삶의 양식과 신념의 근원이며 또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미지와 물질적·비물질적 역사적 유산의 유기적 총체이다. 그러나 도시는 문화에 대한 명확한 가치인식과 활용방식에 대한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위해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문화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연구결과 대도시에서도 문화재와 문화기반시설 등이 도시발전을 나타내는 요인과 상과관계가 없었고, 중·소도시에서도 문화적 요인들을 갖춘 도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도시정부에서 눈에 띄는 결과만을 지향하여 추진하고 있는 많은 문화적 축제와 행사,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규모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문화전략,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시민의 지역문화발전에 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위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인 7개 광역자치단체 69개구(5개 군 제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도시의 문화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은 첫째, 문화유산은 보존의 가치를 유지하며, 지역의 경제적 측면과 연계되어 성장요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징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셋째, 문화기반시설은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도시민의 주변에 자리매김을 하여야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등은 도시를 재구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핵심지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ww.kci.go.kr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민이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화계승과 도시성장과 관련된 가치들이 균형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도시민의 삶과 연계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역사적 특성, 생활방식 등을 포괄하는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는 도시의 지속성을 가진 혁신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현재의 단기적·산발적인 행사성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의 역사적·시간적 스토리가 담긴 상징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조차 인식되지 못하는 도시의 상징을 도시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단순히 경제적 수익성에 편중되지 않는 도시의 상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명확한 문제인식과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문화적 상징과 문화시설 등은 도시공간구조와 융화된 동선에 위치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선진국의 문화도시의 중요한 상징물들은 집중적인 분포를 지님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쉽게 기억되며 도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끌어 주는 도시의 중심 또는 주요지점에 상징축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도시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상호관련된 맥락과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 도시민의 삶의 공간개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공간구조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개된 도시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부족하였다. 이에 충분한 근거제시를 통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향후 도시문화와 도시성장을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을 조사하여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상원, 이정만, 김정미, 이종영. 2012. 문화도시 공간규모에 따른 창조적 재생 사례 연구: 독일, 스페인, 영국, 국제기구 및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55: 343-363.

김영종, 이재호. 2010.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4): 1019-1039.

김유신, 윤상근. 2011. 문화 다원주의, 문화적 정체성, 공약불가능성. 대동철학. 57: 159-183.

김항집. 2011.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4): 123-148.

남근우. 2011. 재일동포사회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민족, 조국 귀속성, 현실의 '3중 경계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1(4): 159-188.

박병호, 김준용. 2010.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지방도시 동태적 쇠퇴유형 연구. 지역연구. 26(2): 3-17.

www.kci.go.kr

오장근. 2009. 서울의 기호학: 어제, 오늘, 내일 도시 공간 "청계천"의 서사성과 문화정체성: 도시 공간 "서울"의 분석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 기호학연구. 25: 205-231.

이병량, 박윤환. 201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71-96.

이영성, 김예지, 김용욱. 2010. 도시차원의 쇠퇴실태와 경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1-11.

이재은. 2012. 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전형연, 정지연. 2010. 한국 지역의 문화정체성 홍보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8(3): 190-205.

조진희, 이동건, 황희연. 2010.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 유형화. 국토지리학회지. 44(1): 35-50.

최경란, 이민영, 김규희. 2009. 세계 주요 도시의 문화적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4): 381-391.

허만형. 2001. 통계분석론. 서울: 법문사.

Lee, Chang Kil. 2013. Exploratory Research to Overcome the Urban Cultural Identity Crisis.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3(1): 1-8.

이창길: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성과관리, 정책분석 및 평가, 인사행정, 문화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도시의 쇠퇴현상과 재난발생과의 관계분석(2013)", "지방공기업 조직, 인사 및 노사관리 부문 경영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2013)", "도시의 위기관리 변화와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2013)" 등이 있다(changkillee@incheon.ac.kr).

www.kci.go.kr